

폐암 환자에서 기관지 성형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동윤·최세영·박창권·이광숙·유영선

폐암 환자에서 기관지성형술은 전폐절제술을 받기에 폐기능이 충분치 않은 환자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환자에서 전폐절제술을 대신할 만큼 발달되었다. 소매폐엽절제술이란 병소 부위 폐엽과 주기관지 일부를 절제한 후 기관지를 단단문합하는 수술로 병소이외의 건강 폐조직을 보존할 수 있으며 폐기능 저하로 전폐절제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되는 술식이다. 이 수술은 기존의 폐절제술에 비해 합병증이나 사망율이 낮고 술후 생존율이 비슷하면서 적절한 폐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널리 보편화될 수 있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92년 1월부터 1995년 7월까지 15례의 폐암 환자에서 기관지성형술을 시행하였다. 남녀 비는 남자 13례, 여자 2례였고 연령 분포는 60대가 8례로 가장 많았다. 소매상엽절제술 12례, 소매우하엽절제술 2례, 소매전폐절제술 1례였다. 15례의 환자를 좌우측 수술부위, 조직학적 분류, 임파선 침범정도에 따라 생존율을 비교해 보았다. 우측방 수술군, 비편평세포암종군, N0군과 N2군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각각의 유의성은 없었다. 술전 폐기능검사를 이용한 술후 예상 FEV1은 술후 실측 FEV1과 비교해 본 결과 상관관계가 있었다($r=0.71$). 폐암으로 기관지성형술을 받은 군과 전폐절제술을 받은 군을 비교하기 위해 1990년 이후 폐암으로 전폐절제술을 받은 27례의 환자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지성형술군의 합병증은 국소적 재발 3례, 문합부위 협착 1례, 창상 감염 1례였고 전폐절제술군의 경우 국소적 재발 3례, 창상 감염 1례, 농흉 1례였으며 원위 전이 5례가 있었다. 기관지성형술군의 경우 조기사망이 1례(6.7%), 만기사망이 2례(14.3%)였고 전폐절제술군은 조기사망 3례(11.1%), 만기사망 9례(37.5%)였다. 양군의 생존율을 비교해 본 결과 기관지성형술군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P<0.05$).

결론적으로 폐암 환자의 일부에서 수술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술후 효율적인 환자관리가 된다면 기관지성형술이 전폐절제술보다 적절한 폐기능을 유지하면서 높은 생존율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